

Theme 2. 거시적 독해와 미시적 독해, 복습하고 넘어가자.

[개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문장을 잘 읽자. 그렇게 잘 읽은 문장들을 서로 연결하자. 연결하며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로 모아서 소주제를 뽑아내자. 그리고 그렇게 잘 확보한 각 문단 사이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며 지문의 목차를 짜며 글을 읽자. 이때, 그 목차의 기준은 바로 ‘키워드에 대한 핵심 정보’다.

위 문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하는 ‘독해’라는 사고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독해 공식을 학습해온 과정을 잘 생각해보자. 위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 여러 절차의 빌드업을 했다. 그 과정에 대해 복습해보고자 한다.

[1] intro : 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을 기억해야 한다.

‘사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그 ‘사고’ 과정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암기시키고 체화시킬지 고민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 책을 쓰는 매 순간이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시각적 정보’의 위대함을 마주했다.

왜 시각적 정보냐?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을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고 과정을 강제로라도 눈에 보이게, 실체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까지 독해 공식을 설명할 때, 각 요소마다 그림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다.

돌이켜보면, 이 책의 서술 방식은 ‘글로 꼭 설명 → 그리고 그 글을 다 이해했다면, 이 그림을 보면 된다.’와 같았다. 그림은 독해라는 사고 과정이 어떠한지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였고, 글은 그 그림이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결국, 그림을 통해 어떠한 사고를 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지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부터 독해 공식에 대해 복습할 것인데, 글은 최소화하고 독해 공식을 빌드업하고 뽑아낸 그 흐름 그대로, 각 step마다 나온 그림을 순차적으로 배열해줄 것이다.

[2] 일단, 독해 공식의 완성된 세부 목차를 보자.

[PART 2. 독해 공식]

CHAPTER 02 | 평가원 지문의 뼈대를 잡아보자 : 거시적 독해

Theme 1. 평가원 지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

- Topic 01. 핵심 정보와 보조 정보로 나눌 수 있다.
- Topic 02. 결국, 정보는 ‘화제(핵심 정보)’로 모인다.
- Topic 03. 화제(핵심 정보)는 항상 같은 패턴이다.

Theme 2. 평가원은 이런 정보를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 Topic 01. 글의 초반부 : 키워드 ~ 화제(핵심 정보) 도입
- Topic 02. 초반부 이후 : 정보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 Topic 03. 글의 마무리

Theme 3. 행동강령 수립 :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Topic 01.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리마인드
- Topic 02. 행동강령 로드맵 세우기
- Topic 03. 로드맵을 기반으로 행동강령 수립

Theme 4. 글의 목차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 Topic 01. 하위 범주로 쪼개기 : 쪼개고 각각을 구체화한다.
- Topic 02. 나열 : 넘버링
- Topic 03. 통시적 흐름 : 변화되는 것과 유지되는 것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CHAPTER 03 | 평가원이 지문 뼈대에 살덩이를 붙이는 방법 : 미시적 독해

Theme 0. 용어의 개념 정의,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Topic 01. 개념 정의, 박스치고 완전 이해
- Topic 02. 특수한 개념 정의에 주의하자
- Topic 03. 예시 지문

Theme 1. 난해한 문장, 이렇게 뚫어야 한다.

- Topic 01. 수식어구가 중요하다. + 문장 성분이 길어지면 어려워진다.
- Topic 02. 총정리

Theme 2. 잘 읽은 문장들, 붙여야 한다.

- Topic 01. 순접 : 문장을 연결하는 접착제
- Topic 02. 인과 (원인-결과, 요소 간 관계, 조건, 근거)
- Topic 03. 예시의 활용 : 일반적인 설명에 붙이기
- Topic 04. 역접 : 문장 구분의 단서
- Topic 05. 원칙-예외 / 일반-특수 : 짝지어주기
- Topic 06. 문장의 구분&연결, 총정리

Theme 3. 연결과 구분에 대한 다양한 생각

- Topic 01. 요소 간 관계 : 공식
- Topic 02. 순서, 과정 : 넘버링

Theme 4. 그때그때, 마주치면 해야 하는 생각들

- Topic 01. 포함 관계 vs 부속품 관계
- Topic 02. 추상적 / 주관적 범주 : ?→!
- Topic 03. 반댓값 추론 / 정보 생략 :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 Topic 04. 극단적 범주 : 동그라미
- Topic 05. A가 아니다. B다. : O X

CHAPTER 04 | 실전 TIP

Theme 1. 시각적 모델링 (지문 위에 / 지문 옆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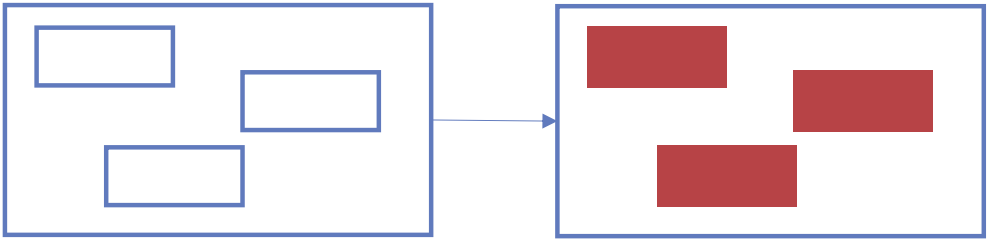
Theme 2.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그런갑다”

목차를 바탕으로, 쪽 흐름을 생각해보며 ‘아 여기서는 이런 것을 배웠었지!’한 번 떠올려보길 바란다. 책의 목차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학습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3] 그림으로 복습하자.

목차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쪽 흐름을 타보자.

STEP 01. 지문에 있는 정보는 핵심 정보와 세부 정보였지?



STEP 02. 핵심 정보의 종류는 아래와 같았어. 각 핵심 정보에 대해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지도 설명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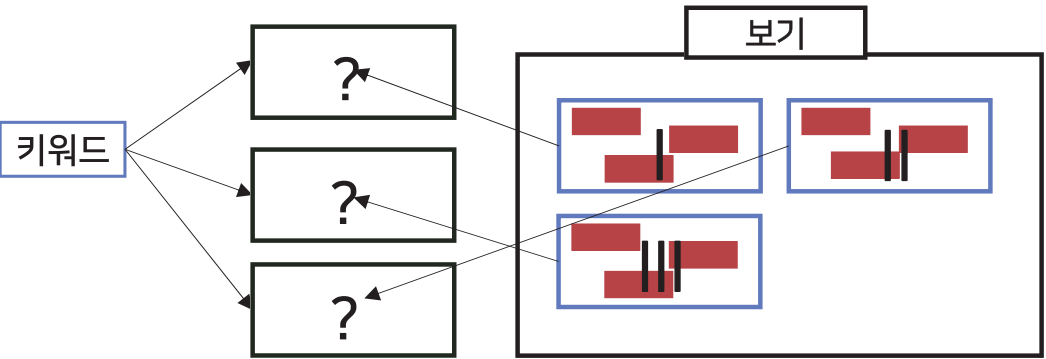
핵심 정보

I. 키워드에 대한 특정 범주의 내용 설명 (문제점, 질문 제외) : 평서문으로 화제 대놓고 제시 or 중심 소재 정도만 잡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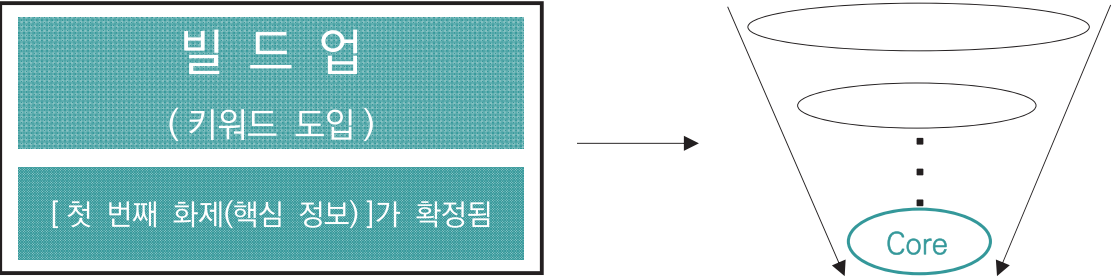
II.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점(P) → 해결책(S) : 문제 제시

III. 키워드와 관련된 의문(Q) → 답변(A) : 의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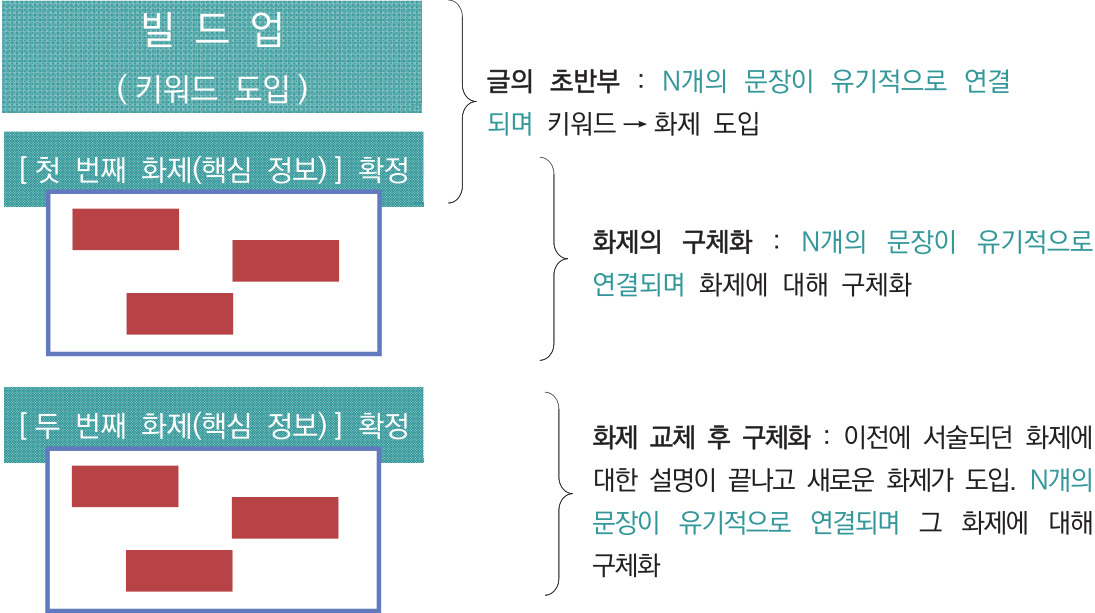
STEP 03. 그래서 지문은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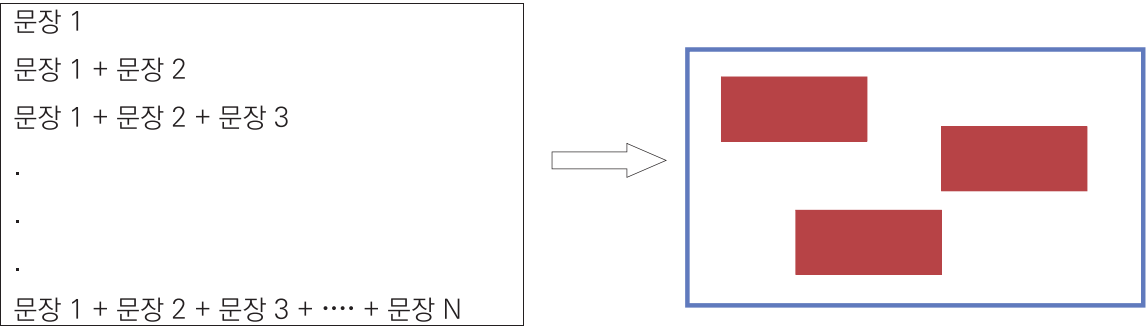
STEP 04.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글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부했었지? 먼저 글 초반부는 아래와 같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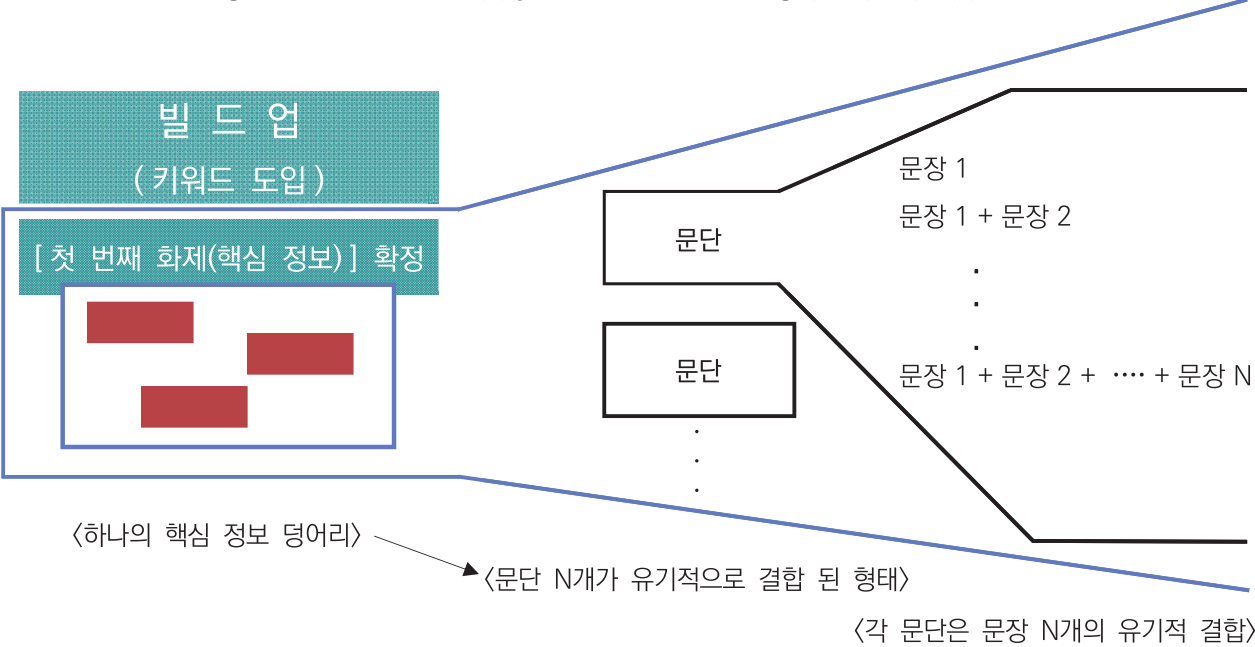
STEP 05. 그리고 지문 전체는 이와 같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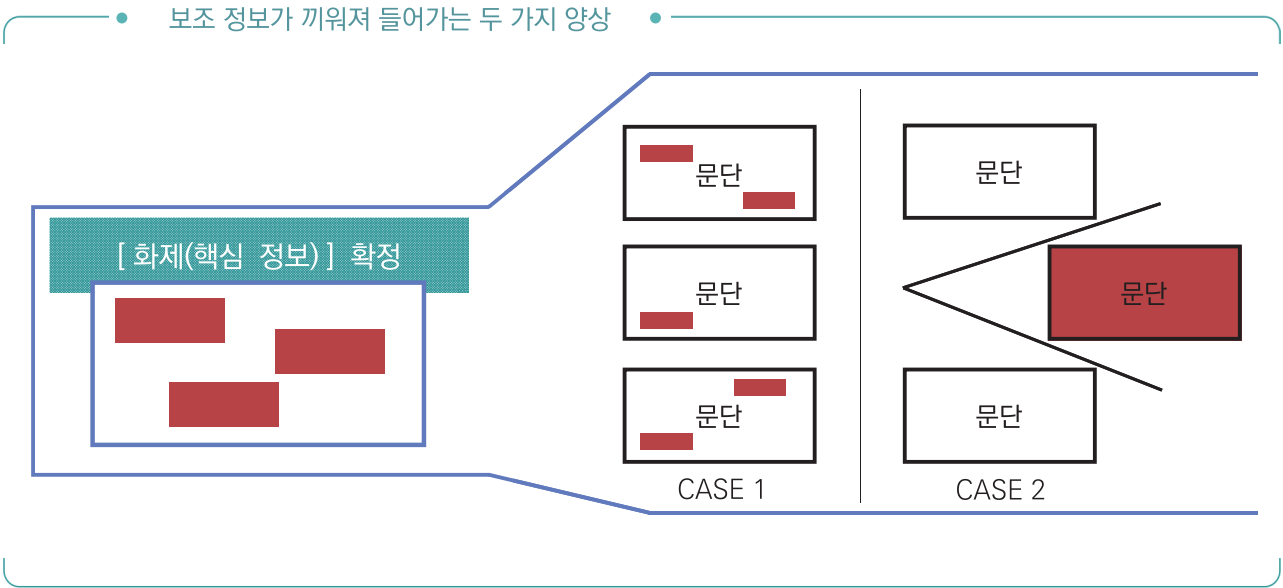
STEP 06. 그래서 글로 어떻게 표현하냐고?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아래와 같았어.



STEP 07. 그런데 문장은 문단 N개로 쪼개져 있지않음? 그래서 이거까지 반영하면 아래와 같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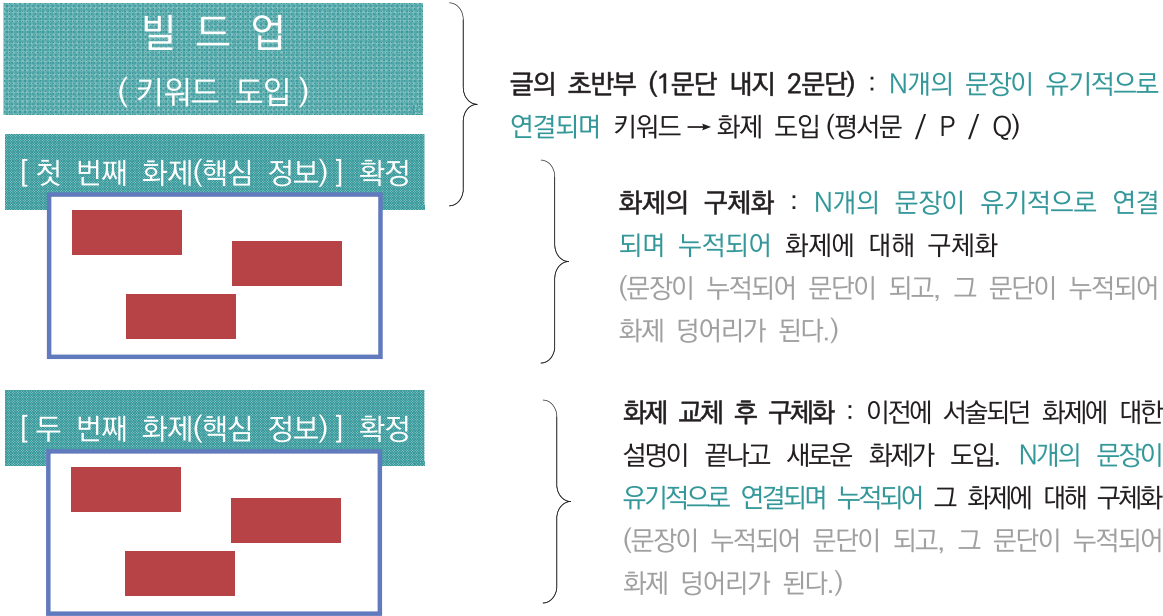
STEP 08. 그런데 저기 보조 정보는 어케 끼워져 들어가는 거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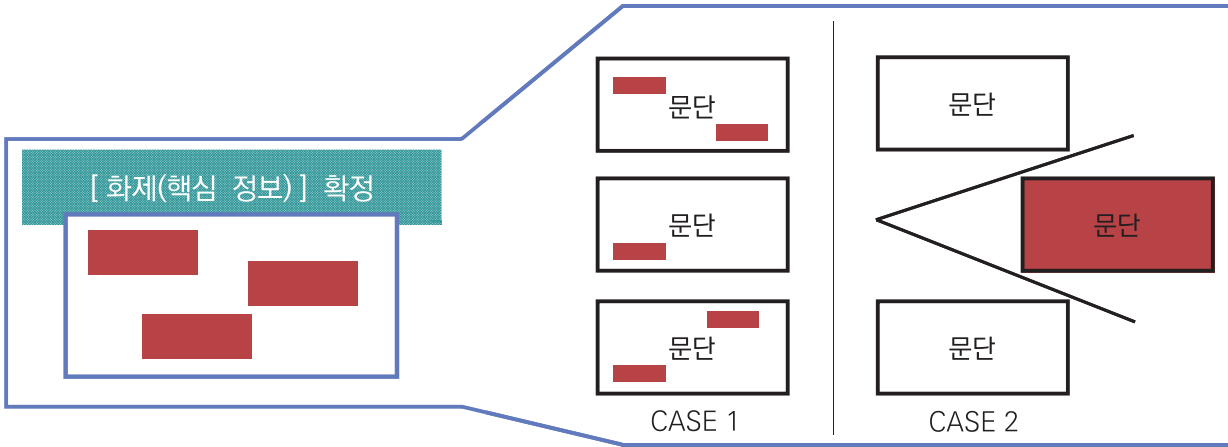
STEP 09.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종합하면 아래와 같았었음.

총정리 : 비문학 지문, 이렇게 생겼다.

글은 아래와 같이 [글의 초반부 → 핵심 정보 덩어리 N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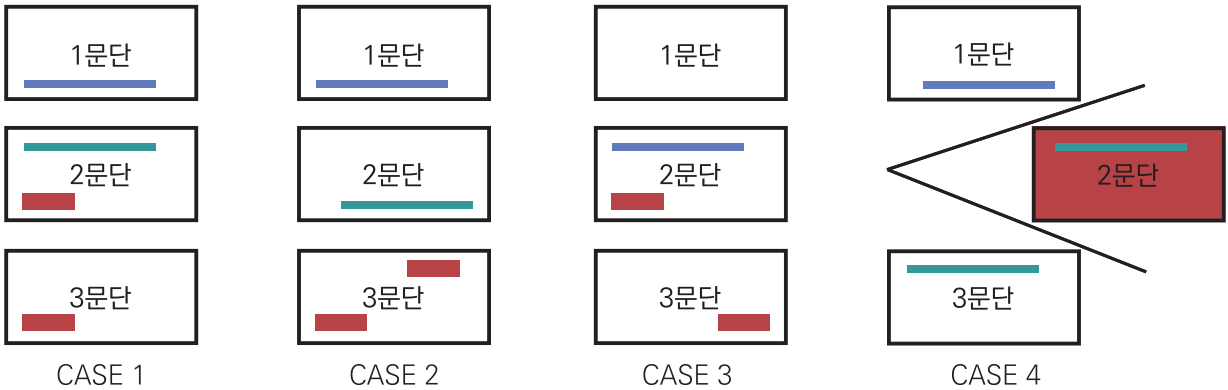
그리고, 각 덩어리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N개의 문장은 실제로 N개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한 핵심 정보가 세부 범주로 쪼개지며 구체화)

STEP 10. 그리고, 지문의 흐름에서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과 화제 속에서 세부적인 범주(흐름)를 잡아주는 문장도 있었음.

• 화제 제시 문장과 화제 속 흐름 잡아주는 문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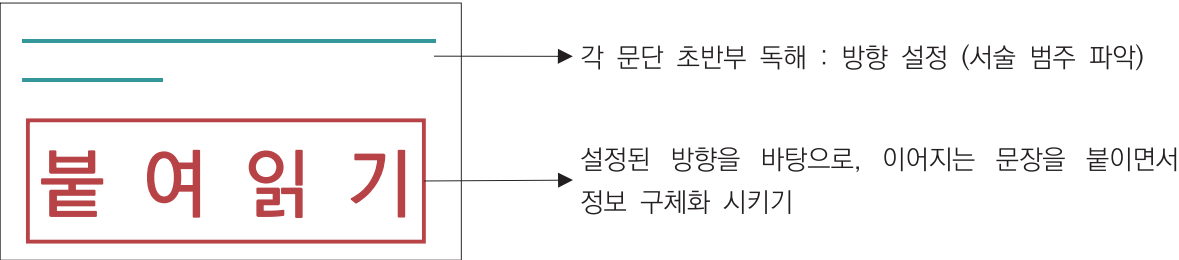


화제 제시 문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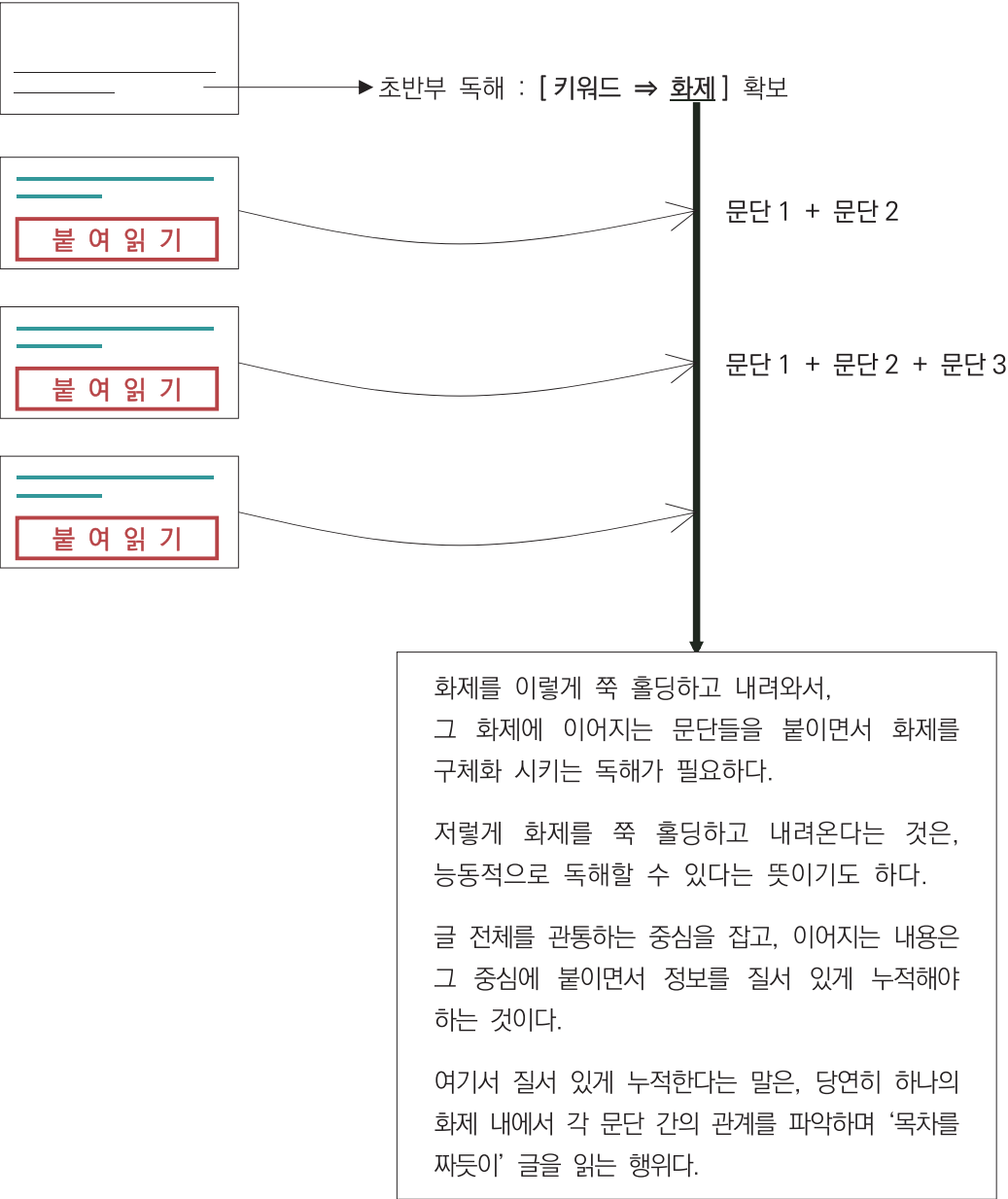
화제 속 흐름 잡아주는 문장 : —————

STEP 11. 그래서 이거 어케 읽으라고 했지?

일단 각 문단은 이렇게.



그리고 지문 전체는 이렇게 읽으라고 했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p.52-60 독해 로드맵 부분만 다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4] 미시적 독해에 대해.

아래의 미시적 독해에 대한 목차를 바탕으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CHAPTER 03 | 평가원이 지문 뼈대에 살덩이를 붙이는 방법 : 미시적 독해

Theme 0. 용어의 개념 정의,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Topic 01. 개념 정의, 박스치고 완전 이해
- Topic 02. 특수한 개념 정의에 주의하자
- Topic 03. 예시 지문

Theme 1. 난해한 문장, 이렇게 뚫어야 한다.

- Topic 01. 수식어구가 중요하다. + 문장 성분이 길어지면 어려워진다.
- Topic 02. 총정리

Theme 2. 잘 읽은 문장들, 붙여야 한다.

- Topic 01. 순접 : 문장을 연결하는 접착제
- Topic 02. 인과 (원인-결과, 요소 간 관계, 조건, 근거)
- Topic 03. 예시의 활용 : 일반적인 설명에 붙이기
- Topic 04. 역접 : 문장 구분의 단서
- Topic 05. 원칙-예외 / 일반-특수 : 짝지어주기
- Topic 06. 문장의 구분&연결, 총정리

Theme 3. 연결과 구분에 대한 다양한 생각

- Topic 01. 요소 간 관계 : 공식
- Topic 02. 순서, 과정 : 넘버링

Theme 4. 그때그때, 마주치면 해야 하는 생각들

- Topic 01. 포함 관계 vs 부속품 관계
- Topic 02. 추상적 / 주관적 범주 : ?→!
- Topic 03. 반댓값 추론 / 정보 생략 :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 Topic 04. 극단적 범주 : 동그라미
- Topic 05. A가 아니다. B다. : O X

일단, 각 문장을 잘 읽는 방법은 Theme 1에 해당한다. 쉬운 문장은 솔직히 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수식어구가 복잡하고 하나의 문장 성분이 길어져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장은, 저기서 배운 방법을 잘 활용해서 뚫으면 된다.

그리고, Theme 0와 Theme 2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들이었다. 이는 한 핵심 정보 내에서 세부 목차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생각이다. 미시적 독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접과 역접의 경우 표지어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표지어는 그냥 보조 수단이다. 일단 내용을 통해 이전 내용과 연결해야 할지 구분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Theme 3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들이었다. 문장 N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공식이 완성되고, 문장 N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련의 순서,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Theme 4는 읽어 내려가다가 해당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생각을 공부하는 파트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적 독해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시적 독해(구조 독해), 그러니까 지문 전체에서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사고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그 핵심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사고가 바로 '미시적 독해(그읽그풀)'인 것이다.

CHAPTER 4



2026학년도 수능



[Comment]

이제 지금까지 배운 독해 방법을 그대로 직전 수능에 적용해볼 것이다. 비독교의 방식으로 직전 수능을 훑어보자. 학습 방법은 이전과 같다.

[학습 방법]

STEP 1 | 먼저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고 해설지의 [있는 그대로의 시험지] 살펴보기

STEP 2 | 해설지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기

⇒ 지문 읽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 문제의 출제 의도 파악에 집중하기

STEP 01. 직접 풀어보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르기 때문이다.

7.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루는
- ② ㉡: 헤아려
- ③ ㉢: 깨뜨리고
- ④ ㉣: 이루어지려면
- ⑤ ㉤: 바로잡고

STEP 02. 이런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한다.

한 문단 내에서의 사고 :

문장과 문장을 연결 & 구분하며 정보 누적하기

문단 간의 사고 :

문단과 문단을 연결 & 구분하며 목차 만들기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 첫 문장부터 용어 개념 정의했다. 법 해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1문단에서 제시된 용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 법 해석의 정의 안에서 또 성문법의 정의가 수식어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경우, 성문법의 정의를 살려서 법 해석을 이해해야 한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법 해석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당연하지), 성문법을 ④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 해석은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다.)

이러한 '문리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문리 해석'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라는 거 잘 알겠어. 근데 이렇게 1문단이 끝났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일단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정보를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2문단에 붙여봐야겠다.

그러나 문리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법 해석이 어려우면),

→ 어! 이거 문제점이다! 위에서 확보했던 문리해석의 정의를 입혀서 읽어보면,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을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방식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⑥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바로 해결책이 나왔네! 법조문의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으니까, 사용된 맥락과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해결책이 제시됐어.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 이어서 그 해결책의 예시도 준다. 예시는 항상 일반적인 설명에 붙여서, 그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된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 담보라는 단어의 일상적 의미네. 문리해석을 하려면 이 의미를 사용해서 그 법조문을 이해해야겠군.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이게 앞서 말했던 해결책이잖아!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체계적 해석'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2문단이 끝났는데, 이제 성문법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의 체계적 해석이 일어나는지 확보하러 들어가야겠다.

[1문단 독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한 문리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2문단 독해]

문제점 제시 : 문리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결책 :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or 입법 과정을 보는 역사적 해석을 사용

예시 : 담보

- 일상적 의미 : 맡아서 보증함

- if 성문법 조문, 그 체계적 해석 사용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성문법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의 체계적 해석이 일어나는지 확보하려 들어가야겠다.” 2문단에서 이 생각을 하고 넘어왔다면, 이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바로 반응이 올 것이다. ‘유상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담보를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체계적 해석’이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 근데 우리가 유상 계약이 뭔지 모르니까 유상 계약이 뭔지를 준다. 이해하고, 담보의 정의에 붙여서 읽으면 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 매매 계약으로 그 범위를 좁혔다. 담보라는 예시 안에서, 또 특정 상황(매매 계약의 맥락에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예시를 준다.

→ 문장에 수식으로 주어진 조건이 복잡하다. 잘 끊고, 수식어는 잘 묶어야 한다.

“상황: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
결과: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의 정의가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조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하자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되었어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단약 하자로 인해 /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담보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앞 문장에 붙여야 한다.

→ 법 지문에서 항상 등장하는 원칙-예외다.

원칙적인 담보 책임: 손해 배상 (계약 후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못 하는 부분을 배상)

예외: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파기 & 대금 환불

이렇게 정리된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또 예외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의 내용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 애초에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1.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던 경우

2.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 수 있었던 경우

를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TIP

무작정 예외라고 같은 범주로 뭉개버리면 안 된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1문단 독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한 문리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2문단 독해]

문제점 제시: 문리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결책: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or 입법 과정을 보는 역사적 해석을 사용

예시: 담보

- 일상적 의미: 말아서 보증함
- if 성문법 조문, 그 체계적 해석 사용

[3문단 독해]

담보의 체계적 해석 예시

1. 유상 계약의 맥락

- 담보: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 in 매매 계약

- if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 못한다면,

→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함.

→ 손해 배상이 원칙

예외: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파기 & 대금 환불

예외: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 인정 X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니, 범주가 교체되었다. 이전 문단에서는 담보의 '유상 계약 맥락'에서의 체계적 해석을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담보의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의 체계적 해석을 다룬다.

담보 물건이 그 예이다.

→ 바로 예시가 제시된다. 담보 물건이 뭔지 이제부터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담보의 정의가 나올 때 반응해주면 된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황 설정] '채권의 실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안 될 때의 대안(강제 집행)을 설명하고 있다. 담보가 '채권 실현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이 강제 집행 과정에서 담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어떻게 좋은지 비교해봐야겠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 [절차 구체화] 강제 집행이 구체적으로는 '물건 팔아서(경매) 그 돈을 나눠 갖는(배당) 것'이구나. 그럼 '배당'을 받을 때가 채권이 실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칙(문제점) 제시]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가 문제구나. '비례해서 받는다'는 건,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면 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채권 실현 불확실)는 뜻이네. 이게 담보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구나.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 [예외(해결책/담보의 의미) 확인] 여기가 핵심이다. '그러나' 뒤에 담보의 진짜 기능이 나왔다. 남들은 나눠서 조금밖에 못 받을 때, 담보가 있으면 '먼저(우선순위)' 다 챙겨갈 수 있구나. 이렇게 순서를 앞당김으로써 첫 문장에서 말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거였네.

[1-2문단 독해]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 해석은 원칙적으로 단어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한 문리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점 제시 : 문리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결책 : 맥락을 보는 체계적 해석 or 입법 과정을 보는 역사적 해석을 사용

예시 : 담보

- 일상적 의미 : 말아서 보증함
- if 성문법 조문, 그 체계적 해석 사용

[3문단 독해]

담보의 체계적 해석 예시

1. 유상 계약의 맥락

- 담보 :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 in 매매 계약
 - if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 못한다면,

→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함.

[손해 배상이 원칙
예외 :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파기 & 대금 환불

→ 예외 :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 인정 X

[4문단 독해]

담보의 체계적 해석 예시

2. 채권과 관련된 맥락

- 담보 :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ex) 담보 물건
 - 전제 상황 : 채무 불이행과 강제 집행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해야 함.
 - 과정 : 부동산 압류 → 경매 → 경매 대금 확보 → 채권자들에게 배당

- 담보의 핵심 기능 : '우선 변제권'

→ 원칙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들):
- 비례 배당 (안분 배당) : 각자 빌려준 돈의 액수에 비례하여 나눠 갖는다.
- 결과 : 경매 대금이 부족하면 빌려준 돈을 다 못 받을 위험이 크다.

→ 예외 (담보 물건을 가진 채권자): 우선 변제 결과 : 남들이 돈을 못 받더라도, 담보권자는 자신의 돈을 확실하게 회수(실현)할 수 있음.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 보증의 정의다. 1문단에서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확보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 어? '담보' 나왔다. (가)에서 담보는 두 가지였지. '물건의 하자를 책임지는 것(3문단)'과 '돈 떼일까 봐 확보해 두는 것(4문단)'.

→ 여기서 보증은 사람(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가)의 4문단(채권 실현 확보) 맥락의 담보구나.

→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 채무도 사라진다? 이걸 당연한 인과 관계.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고? [채권자 ↔ 보증인]이야. 주채무자는 빠져있네.

→ (가) 3문단에서 '유상 계약'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어.

→ 그런데 여기서 보증인만 빚을 지고 채권자는 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라서 유상 계약이 아니구나. ((가)에 제시된 용어 정의 끌고 와서 붙여 읽기)

㉠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왜 마찬가지지? 아까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 ↔ 보증인]이라고 했으니까.

→ 주채무자가 보증인한테 돈을 주는 건 지들끼리의 별도 사정이고, 보증 계약(채권자 ↔ 보증인) 자체 안에서는 오가는 대가가 없으니까 여전히 유상 계약이 아니라는 거구나. 논리 깔끔하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 다음 문단으로 넘어오니, 보증 계약이라는 키워드만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로 범주가 이동한다.

→ 어떻게 법적 규제를 해야 보증인 보호를 할 수 있지? #능동적 독해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¹ /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²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³이지만 /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⁴

→ 민법에 의한 법적 규제를 언급하며, 그 세부적인 조건 4가지가 나열된다. 넘버링하며 확보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¹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²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 새로운 케이스다. 구분해줘야 한다. 1과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문단 독해]

보증의 정의와 성격

- 정의: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타인이 대신 갚는 것

- 당사자: 채권자 ↔ 보증인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님)

- 특징 1: 주채무 소멸 →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

- 특징 2: 유상 계약이 아님

- 이유: 보증인만 의무를 지고, 채권자는 대가를 주지 않음.

- if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돈(대가)을 주기로 따로 계약했다면? → 그래도 보증 계약(채권자 ↔ 보증인) 자체는 여전히 대가 교환이 없으므로 무상임.

[2문단 독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1. 민법 (기본 규제)

- 원칙: 계약서 작성 + 서명/날인 필수

- if 위반 시 → 보증 계약 무효

- 예외: 이미 보증 채무를 이행해버린 경우 → 무효 주장 불가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가 보호)

- 적용 조건 (AND)

1. 주채무가 사업과 무관할 것

2. 대가 없는 호의로 보증 썼을 것

- 보호 효과: 간주 규정 적용 (ex. 기간 명시 없으면 3년으로 간주)

담보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 새로운 케이스다. 구분해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앞 문단에서 제시된 민법에 의한 보증 계약 4가지 조건은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걸 기본이다. 여기에 추가로 앞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 더해지는 것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러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재산 증명)"라고 통길 수 있구나. 방어권이 있네. #능동적 독해 : 현재 우리는 "어떻게 법적 규제를 해야 보증인 보호를 할 수 있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연대 보증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언급되네. 특약을 맺으면 방어권이 사라져. 채권자가 주채무자 안 거치고 바로 나한테 와도 할 말이 없네. 훨씬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애네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거지..?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예! 이 법 앞에서 봤는데. 드디어 왔다. (가) 지문의 핵심(해석 방법의 차이)을 여기에 써먹겠구나.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문리 해석에 해당한다.

- 법조문 글자 그대로 보자.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써있네?

- 근데 아까 3문단에서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 안 했는지 따지기도 전에 채권자가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었잖아?

- 그럼 문리 해석상으로는 연대 보증인은 이 법조문에 딱 들어맞지 않아서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입법 과정'? 이걸 (가) 2문단의 '역사적 해석'이잖아.

→ 만든 사람들의 의도(입법 과정)를 보니 연대 보증인도 보호하려고 했다.

→ [결론 도출] 아해

- 글자 그대로(문리 해석) 보면 연대 보증인은 보호 못 받을 수 있는데,

- 만든 의도(역사적 해석)를 따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 그래서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첫 문장에서 말했구나.

[1-2문단 독해]

보증의 정의와 성격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1. 민법 (기본 규제)

- 원칙: 계약서 작성 + 서명/날인 필수

- if 위반 시 → 보증 계약 무효

- 예외: 이미 보증 채무를 이행해버린 경우
→ 무효 주장 불가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가 보호)

- 적용 조건 (AND)

1. 주채무가 사업과 무관할 것

2. 대가 없는 호의로 보증 썼을 것

- 보호 효과: 간주 규정 적용 (ex. 기간 명시 없으면 3년으로 간주)

[3문단 독해]

일반 보증 vs 연대 보증 (권리의 차이)

1. 일반 보증인

- 상황: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안 가고 보증인에게 먼저 돈 달라고 함.

- 대응: 거절할 권리 있음

- 조건: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2. 연대 보증인

- 정의: 보증 계약에 '연대 보증 특약'이 포함된 경우

- 핵심: 거절할 권리를 포기한 상태

- 결과: 채권자가 주채무자 안 거치고 곧바로 전액 청구하더라도? → 거절 불가 (무조건 갚아야 함)

[4문단 독해]

연대 보증인과 법 해석의 충돌 ((가) 지문의 적용)

쟁점: 연대 보증인도 '특별법'의 보호 대상인가?

- 법조문 (제2조):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됨.

- 해석의 갈림길

1. 문리 해석 (글자 그대로)

연대 보증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따지기 전에 청구 가능함. → 법조문 문구와 딱 맞지 않음 → 보호 대상 아닐 수도?

2. 역사적 해석 (입법 과정 고려)

입법 당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 → 취지를 고려하면 보호 대상 맞춤. 결론: 어떤 해석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짐.

STEP 03.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했다.

4.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지문 (가) 분석>

- 1문단에서 법 해석의 출발점인 '문리 해석'을 제시합니다.
- 2문단에서는 문리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언급하며 해석의 방법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후 '담보'라는 예시를 통해 이러한 해석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 따라서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라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지문 (나) 분석>

- 1문단에서 보증 계약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설명합니다.
- 2문단에서는 「민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방식과 보호 규정을 설명합니다.
- 3문단에서는 보증인의 권리와 연대 보증 특약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 이는 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원칙(규범)들의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열거)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5. 정답: ④

[정답 풀이]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지문 확인 (3문단)

-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 "목적물이...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논리적 오류 분석 (인과관계 왜곡):

- 지문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 가치가 떨어지면(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후 처리(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선지는 '값어치가 일치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성립 요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합의)'으로 체결되는 것이지, 객관적 가치가 기계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1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기로 합의해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오답 풀이]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해설:

(가) 1문단: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 일치함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해설:

(가) 4문단: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일치함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해설:

(가) 4문단: 일반 채권자는 비례하여 배당받지만,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우선 변제권) → 순위에 영향을 줌 → 일치함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해설:

(가) 2문단: 문리 해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치함

6.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논리적 도출 과정:

1. (가) 문단 3 [정의 확인]: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계약을 맺은 A와 B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나) 문단 1 [당사자 확인]: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주채무자는 이 계약의 제3자입니다.)

3. (나) 문단 1 [상황 분석]: 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채무를 지는 대신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는 대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상 계약이 아닙니다.

4. [㉠의 상황 적용]: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대가(수수료)를 줍니다. 하지만 주채무자는 ‘보증 계약(채권자 ↔ 보증인)’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5. [결론]: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여전히 보증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대가는 계약 밖의 인물(주채무자)이 주는 것이므로, 보증 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의 교환이 없어 유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는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으며, ㉠의 논리와 무관합니다.

③: 보증인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것(구상권)은 사후 처리 문제이지, 계약 시점의 성격(유상/무상)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가 아닙니다.

④: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왜 유상 계약이 아닌가’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상 계약 여부는 ‘쌍방이 대가를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⑤: 보증의 기능(담보)을 설명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간의 대가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